

나주, 중학생 미국 어학연수로 글로벌 인재 양성

현지 정규수업·홈스테이 결합...실전형 영어 교육 운영
명문학교·대학 등과 연계 체험...가능성·진로 역량 강화

겨울방학을 맞이한 지역 중학생들에게 나주시가 해외 현지 교육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진로 확장에 나선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 28명과 인솔자 4명을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에서 현지 어학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영어 학습을 넘어 미국 현지 고등학교의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가정 홈스테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현지 교육 환경과 생활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학생들은 환영식을 시작으로 영어 집중 수업, 팀 프로젝트, 현지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활동 등에 참여하며, 실생활 중심의

영어 활용 능력과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연수 기관인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는 1921년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로 약 4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교육 체험에 적합한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학생들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대학교를 방문하고 우드비 헤이즈 항공우주박물관을 견학하며 과학과 우주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회의사당, 링컨 기념관 등 미국의 주요 역사, 정치, 문화 명소가 위치한 내셔널 몰(National Mall)을 방문해 미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폭넓은 현장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 비용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나주시 중학교 2학년 학생 28명과 인솔자 4명은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부담을 덜기 위해 나주시가 일부 지원하며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지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가능성

과 진로를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수 기간 동안 철저한 안전 관리와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연수에 앞서 최근 동신대 학교에서 참여 학생과 학부모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수 일정, 현지 수업 방식, 홈스테이 생활 안내, 출국 전 준비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학생 간 유대감 형성과 원활한 연수 참여를 위해 친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배 참여 학생들의 경험담과 현지 적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286억 지원...기후변화 선제 대응

5개 분야 92개 사업 추진...내달 6일까지 접수

완도군은 올해 농·축산 5개 분야에 286억원을 지원한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농·축산 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과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지원 사업 지침 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총 92개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하고, 읍·면 담당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 정책(농어민 공익 수당 지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지원 등 14개 사업), 농업 생산(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농기계 구입 지원, 기본형 공익 직불제 등 39개 사업), 농식품 유통(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포장제 지원 등 9개 사업) 등이다.

축산 분야는 축산 정책(축산 시설 현

대화 장비 및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등 23개 사업), 동물 방역(축산 농가 소독기 지원, 가축 방역 관련 약품 지원 등 7개 사업) 등이다.

사업 대상자는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 영농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으로 2월 6일까지 거주 읍·면 사무소에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등은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과

현지 확인 후 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농업인들이 사업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과 담당자 연락처가 수록된 사업 지침 요약서를 제작해 12개 읍·면에 배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기후변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화순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해 2026년부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 추진

디지털 통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화순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해 2026년부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건강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교육과 폭염·한파 대비 안전 확인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건강·안전 지원도 함께 수행하며, 정기적 가정 방문을 통해 어르신

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노쇠·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손목시계

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등 ICT 기반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방식이다. 전용 앱(오늘건강)으로 전송된 건강 정보를 보건소 전문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전화·방문 상담과 의료 연계를 신속히 진행한다.

군은 정기적인 방문 중심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나아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자기관리 역량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건강관리 모델이다”며 “직접 찾아가는 따뜻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빈틈없는 결합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진도, 취약계층 관리구제 추진
재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진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의 관리구제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급여를 받은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 급여가 중지된 대상자에게 올해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검토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등 생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을 ‘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 가구로 완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60만원 및 34세 이하까지 확대 적용 등이다.

진도군은 집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을 찾아내고 선정이 될 수 있는 다른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선정이 되지 않은 가구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분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보성, ‘사랑의 헌혈’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동참

군 공무원 등 56명 참여

보성군은 최근 지역사회의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성군 보건소에 마련된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으며, 보성 자꽃 봉사회와 한마음 봉사회 등 지역 봉사단체가 현장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에 나서며 캠페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김철우 보성군수가 직접 헌혈에 참여해 생명 나눔 실천의 의미를 더했으며, 군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총 56명이 헌혈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매년 수많은 생명이 헌혈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나, 혈액은 언제나 부족한 실정이다”며 “생명



김철우 보성군수가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을 살리는 나눔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헌혈에 동참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랑의 생명 나눔인 헌혈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

신 시민과 봉사단체,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동백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모집

내달 2일까지 접수...2031년 6월까지 운영

여수시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동백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운영법인

을 공개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법인 주사무소가 여수시에 소재하거나 분사무소가 등

인복지관 분관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위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과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탁기관 선정은 4월 개최 예정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의 사업 관련 질의·답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득점한 기관을 위탁 운영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위탁 운영법인은 향후 5년간 지역사회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돌봄, 상담, 취미·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노인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함평, 한파 대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안전 점검

함평군은 겨울철 한파·폭설에 대비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를 통한 취약 어르신 보호에 나섰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대비해 겨울철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와 한파 대응 체계를 점검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겨울철 한파심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 38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 내용으로는 경로당 난방 상태, 응급 대응 체계, 어르신 안부 확인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한파 취약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로당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이용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